

전국공무원 불자연합 만든다

청와대 감사원 국가정보원 합동법회 계기 추진 부처간 연대 통해 결성...“화합·통일 구현 앞장”

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을 위한 발판이 놓였다.

청와대 감사원 국가정보원(舊 안기부) 불자회가 8일 오후 6시 감사원 강당에서 합동법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부터 단계 연대를 강화하여 불교중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감사원 안홍보씨(감사관)는 “앞으로 국방부등 국가 중앙기관들과 합동법회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올해 단계간 관계강화를 통해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고 법회 취지를 밝혔다.

3개단체 1백여명 회원이 참가한 이날 법회에서 감사원불자와 남정수회장(감사원 3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 2건국운동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3개 단체가 연합법회를 갖게돼 감회가 새롭다”며 “고려시대 불교를 새로운 국가통치이념으로 도입해 국민화합을 이뤘었다. 앞으로 민족적 난제인 국민화합과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 불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타스님(은혜사주지, 평불협 회장)은 “국가기관 중 가장 중요한 3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기자취관을 가지고 직무수행



◇청와대 감사원 국가정보원 합동법회가 8일 감사원 강당에서 열렸다.

하면 반드시 민족화합에 기반한 불교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남북간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타종교보다 북한에 호의적인 불교계가 중심이 돼 남북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지로 강연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타스님(은혜사주지), 감사원 지도법사 청안스님을 비롯하여 청와대불자회 김태동회장(정책기획수석), 정은성교화간사(청와대 통치사료비서관), 김경일총무간사(청와대 행정관), 국가정보원 세기불자회 김지홍회장, 신상우·신동진 감사위원, 노옥섭 1

국장, 임병준 4국장, 장광명 5국장 등 3개기관의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가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세기불자회는 11월 26일 구룡사에서 첫 공개법회를 갖고 감사원불자회를 초청한 바 있다. 세기불자회는 40여명의 활동중이다.

이와함께 여권의 정당불자회도 27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신년차례 합동법회를 갖는다.

이날법회에는 각종단체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하여 청와대불자회 회원 등 총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합병은행 불자회 재창립

한빛은행... 4월 전국모임 갖기로

합병은행들의 불자회 재창립작업이 활발하다. 4월 공식 창립될 예정인 한빛은행불자회는 부산지역부터 전국적으로 상견례법회를 갖는다. 부산 한빛은행불자회는 합병 이후 처음으로 20일 오후 5시 부산 영주암에서 前상업은행과 한일은행불자회원들의 상견례 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는 고문 정판스님이 법문한다.

부산 한빛은행불자회 홍보부장 배상신씨는 “화합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불법을 밝히겠다”며 “예전보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는 회원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빛은행불자회는 지역별로 회합을 가진 뒤 조식을 정비하고, 4월 전국모임을 갖고 전국조직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타은행들도 전국금융단체불자연합회의 조장으로 불자회 통합작업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통합은행 불자회가 탄생될 경우 지난해 회원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은행불자회의 건실화가 전망된다. 김원우 기자

충청 교정인 회지 발간

우리 모임에선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충청지부(지부장 정남복)는 최근 회지를 갖고 99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자수첩 발행, 봉사활동 확대, 성지순례, 합동수계법회, 충청불자의 밤을 확정했다. 또 지회행사로 1인 1명 포교, 어두운 곳에 불심나누기, 법회개회 증가, 경교대 및 수용자 포교전력들의 계획을 정했다. 한편 불자교정인연합회 충청지부는 불교포교를 위해 회지인(불

심) 2호(사진)를 발간했다. 불심은 50페이지 분량으로 법문과 논단, 교정불자공간 등이 실려있다. (0416)733-2220

감사원 불자회 태화집안

감사원불자회(회장 남정수)는 28일 오전 10시 영천 은혜사에서 태화집안법회를 갖는다.

집안되는 법회는 보물로 지정된 은혜사 법당의 후불탱화로 감사원 불자회가 모사하여 법회때 사용할 예정이다.

감사원불자회는 이를 위해 27일부터 40여명의 회원이 함께 참여하

여 참여기도를 할 계획이다. (02)721-9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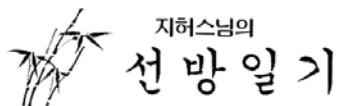
한전반야회 수련회

한국전력반야회(회장 김영창)는 27일부터 28일까지 충주 몽불암에서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임원 중심으로 참여하며 참선과 기도정진, 10주년을 맞는 반야회 발전방향등을 토론했다. 계획이다. (02)3456-5780.

서울대병원 대중공양

서울대병원불자회(지도법사 은진스님)는 28일 용주사 선방에서 대중공양을 펼친다. 이날 대중공양은 대보름맞이 행사를 대신하여 이뤄지는 행사다. (02)760-3176

“오른손에 밭심 왼손에 기연”



지하스님의 선방일기

〈전 호에 이어〉

“그렇지요. 형이상학에 있어서는 가능한 것은 처음부터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할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이하학적인 한계성과 가능성은 배제되고 필연성만이 문제되는 거지요. 이렇게 지껄이는 내 자신이 가능성의 존재인지 불가능성의 존재인지 현재의 나로서는 알 수 없기에 가능성 쪽에 매달려 정진하고 있을 뿐이지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져 있으니까요.”

“무서운 도박이군요.”

“그렇지요. 그리고 무서운 운명이지요.”

“꼭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명제군요.”

“명제가 아니라 문제지요. 해답은 충분조건이 충족될 때 얻어지겠지요. 어서 잡시다. 다사(多思)는 정신을 죽이고 포식은 육체를 죽인답니다.”

밖에서는 살한풍(雪寒風)이 빙글을 울리면서 지각을 두들겼다.

■ 11월 20일 올깨기와 늦깨기

조실스님 시자는 열여섯 살이요, 주지스님 시자는 열아홉살이다. 스무살 미만의 스님들이 이들 두사람 뿐이다. 나이도 어리지만 나이에 비해 체구도 작은 편이어서 꼬마스님들로 통한다. 조실스님 시자가 작은 꼬마요, 주지스님 시자가 큰 꼬마다.

작은 꼬마스님은 다섯살때 날뽀람이 양친이 죽자 이웃 불교 신도가 집에 데려다 주어서 절밥을 먹게 되었고 큰 꼬마스님은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동해안의 낙산보육원 출신이다. 낙산보육원에서 간신히 중학을 마치고 공장 절밥을 먹었다고 한다. 모두가 고아다. 작은 꼬마는 절밥을 12년 먹었고 큰 꼬마는 4년째 먹는다.

꼬마스님들은 대중들의 귀여움을 받는다. 축은해서도 그렇고 가상해서도 그렇다. 그런데 꼬마스님들의 사이는 여름 날씨같은 것이어서 번덕이 심하다. 때로는 허를 서로 불 정도로 다정한 사이인가 하면 때로는 원수 대하듯 한다. 다정(多情)과 앙숙(狹恨)이 오락가락 하는 사이다.

다정한 사이일 때는 서로 범명멸에 스님이 라는 호칭이 붙지만 앙숙지간일 때는 작은 꼬마가 큰 꼬마를 ‘늦깨기’라고 부르고, 큰 꼬마는 작은 꼬마를 ‘올깨기’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성육의 발동기를 10세 전후로 보았기 때문에 10세 전후에 입산한 스님을 동진출가 또는 ‘올깨기’라고 부른다. 그 이후에 입산한 스님을 ‘늦깨기’라고 부른다. ‘올깨기’는 ‘늦깨기’에 대해서 항상 자기의 순결 무구한 동진(童眞)을 내세우고 관록과 선취득권을 주장하면서 ‘늦깨기’를 경멸하는 버릇이 있다.

‘늦깨기’는 입산 초에는 갖 내온 송아지격이어서 그저 죽으려면 죽는 시늉까지 내면서 ‘올깨기’에게 순종하나 절밥 밥그릇 수를 더 해가면서 절생활에 익숙하게 되면 저나 내나

견성 못하고 증생으로 머물러 있는 바에야 절밥만 더 손해 보이게 한 것 이외 무엇이 다른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절밥 도둑놈 올깨기’라고 반격하기 시작한다.

잘 따지고 보면 서로 서로가 어서 빨리 공부해서 견성하자는 탁마의 소리다. ‘늦깨기’는 늦게 들어왔으니 어서 공부하라는 의미고 ‘절밥 도둑놈 올깨기’는 절밥만 오래먹고 공부하지 않아 아직 증생에 머물러 있느냐,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의미이다.

‘올깨기’는 정신과 육체가 함께 생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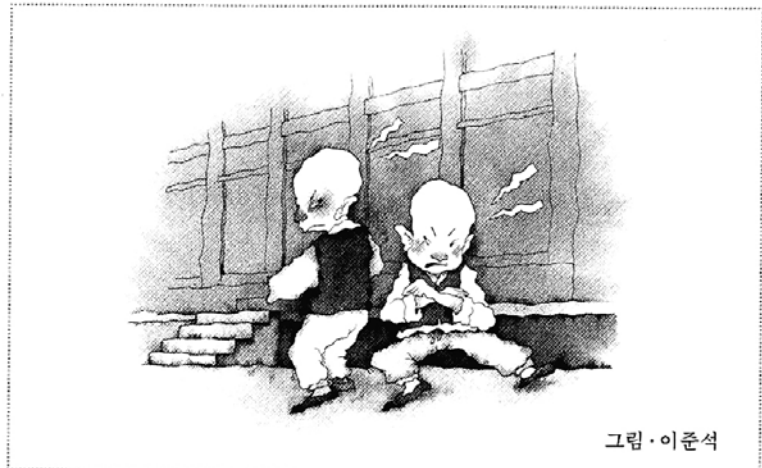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올깨기 동진출가...예불등 절 풍속 능숙 늦깨기 입산동기 뚜렷...생사 절고 수행

을 절간에서 겪기 때문에 혼탁한 사회 생활은 전연 백지여서 순진하기도 하고 특히 산술에 어두운 것은 사실이다. 절풍속이 몸에 쏠여 있어서 가람수호와 예불헌공에 능숙하고 계율을 무척이나 중요시한다.

그러나 대부분 타의에 의한 입산길이었지 자의에 의한 입산길이 아니어서 뚜렷한 입산 동기가 없고보니 절생활이 타성화 되었고 자립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늦깨기’의 입산길은 뚜렷한 동기가 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인생의 패배자나 낙오자들이 자살할 용기마저 없어 찾아가는 곳이 절간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삶들이라 할지라도 절 밖에서 머뭇거리다가 일단 절 안으로 들어와 절밥을 먹게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오목칠정이 용납되지 않고 삼부족(三不足)에서 살아야 한다. 피안으로의 길이 열려져 있지도 않고 열반이 눈앞에 있지도 않다. 같이 살려보지 못하고 절만 살려보면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

박제화시키려는 고풍 뿐이라는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는 피안으로의 길을 자기 자신이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즐거이 수고(受苦)할 뿐이다.

불가에서는 밭심과 기연(機緣)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래서 법성계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이라고 잘 표현해주고 있고 부처님은 분명히 나로서도 인연없는 증생은 제도하지 못한다고 했다. 기연과 밭심이 없는 수도생활은 불가능하고 또 무익하기 때문이다.

밭심은 날로 거듭해야하고 기연은 수시로 더욱 힘차게 붙잡아야 한다. 입산초기의 혼신적인 구도열이 자꾸 쇠퇴해지는 이유는 밭심과 기연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불자는 모름지기 행주좌와에 있어서 밭심을 오른손에 제도하지 못한다고 했다. 기연과 밭심이 없다면 수도생활은 불가능하고 또 무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다보니 ‘늦깨기’만이 밭심과 기연이 있고 ‘올깨기’에게는 없다는 결론인데 천하의 ‘올깨기’ 스님들이 이 ‘늦깨기’를 잡아 치도곤을 즐겨봐 변명하던 사실을 써야겠다. (계속)

'99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72년 9월에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대중불교의 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불교전문교육의 요람으로서 2년제 야간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 불교학과 통신과정
- 지원자격** ○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 포교사 자격고시대비생 (교리 및 의식교육) 불자
- 강의시간** 주4일 수업 (오후 7시부터 ~ 8시 30분까지)
-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년	학기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경전의 이해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초기불교의 이해
	2학기	◇ 대승불교의 이해 ◇ 중국불교의 이해 ◇ 한국불교의 이해
2학년	1학기	◇ 불교문화의 이해 ◇ 비교종교 ◇ 부파불교 ◇ 초기대승불교 ◇ 반야사상 ◇ 유식사상
	2학기	◇ 기신론 사상 ◇ 천태사상 ◇ 화엄사상 ◇ 선사상 ◇ 정토사상 ◇ 불교교리 발달사

※ 매학기 의식이론 및 실습교육 / 동·하계승려교육(특강 및 의식실습 실습)
 ※ 교수진 : 권기종교수(동국대) 강건기교수(전북대) 권탄준교수(동국대) 장희옥교수(동국대) 최종석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 김사업교수(동국대) 김중명교수(동국대) 김흥기교수(동국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2월 28일 18:00까지(본대학 서무과)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특전사항** ◇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서무과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인도 부다가야 産 보리수 묘목 보급

부처님께서 부처님 아래서 정진하셨습니다. 첫 사미승인 부처님의 아들은 부처님의 유산(法)을 보리수 아래서 받았습니. 그 보리수를 사찰과 재가불자들에게 보급합니다.

생활속의 불국토 실현!
 21C 보리수회는 범불교 사찰과 불교가정에 보리수를 보급하는 모임으로 보리수는 불교의 상징입니다.

제 1회 포교사상 제정

- 보리수상 : 우수포교사 10명
- 자 격 : 불교포교공로자
- 선별 및 발표 : 추후 추선 및 추후 지면 발표
- 포 상 : 상금과 상패 및 부상

● 보리수는 절학을 느낄 수 있는 나무입니다.

● 가족간에 행복을 키울 수 있는 나무입니다.

● 소원성취를 약속하는 나무입니다.

● 모든 문제에 대해 드리는 나무입니다.

※ 안착재(적응약재) 판매, 배송료 별도부담

■ 일반불자께서는 한주당 15만원에 판매합니다. ■ 사찰에는 무료보급

· 전국 시·도 지부 개인 활동원을 모집합니다. ·

21C 보리수회

주 소 : 광진구 중곡 1동 240-19호
 연 락 처 : 019-268-6754

★ 봉축 행사, 사찰불사, 불교단체 후원은 보리수회로 연락주시시오 ★